

# ‘깊은 울림’ 씻김굿, 언어와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다



진도 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음반 '나를 위한 노래-씻김'을 공개했다. '지전춤' 한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소리꾼 김원기·이건호가 녹음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기획음반'  
‘나를 위한 노래-씻김’ 제작  
각종 음원사이트 9곡 공개  
국악·POP·록·발라드 조화  
‘진도 씻김굿’ 관심 이어지길



가야금 연주자 장예은이 녹음하는 모습

“나에게 소중한 내 사람 아끼고 좋아했던 내 사람/ 언제나 서로의 곁에서 떠날 줄 몰랐는데/ 꽃은 피었다 지더라도 계절이 돌아오면 다시 피는데/ 사람은 한 번 지고 나면 다시 피울 수 없는 것”(‘나를 위한 노래-씻김’ 수록곡 ‘안녕’ 중)

씻김굿은 진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망자굿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다. ‘씻김’이라는 말에는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과 원한을 씻어 편안히 보내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상실과 이별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다독이는 씻김굿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러한 씻김굿을 오늘의 언어와 음악으로 풀어낸 음반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씻김굿을 바탕으로 한 기획음반 ‘나를 위한 노래-씻김’을 제작해 최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음반에는 서울 지하철 환승역 음악 ‘얼씨구야’와 국악관현악곡 ‘Knock’ 등을 작곡한 김백찬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여기에 신민석, 이진희, 박한규, 임성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온 작곡가들이 함께했다. 팝과 록, 발라드 등 여러 장르의 형식을 차용해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씻김굿의 무가(노래)와 사설(가사) 역시 오늘의 언어로 다듬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김 작곡가는 “진도 씻김굿은 국악인들에게 잘 알려진 음악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았으니, 국악인과 일반인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곡의 첫 소절부터 국악이라는 인식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친근한 감각을 살렸다”며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씻김굿의 매력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 원형에도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수록곡은 모두 9곡이다. ‘초가막식’부터 ‘손곳 치울리기’, ‘제석굿’, ‘길닭음’ 등 진도 씻김굿의 절차를 따라 구성했다. 음반을 전체를 감상하는 것만으로

도 곳의 흐름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첫 트랙은 망자의 혼을 불러들이는 대목에서 착안한 ‘그대 오소서’. 한과 슬픔보다는 경쾌한 리듬과 생동감 있는 음색으로 곡의 문을 연다. 몽환적인 K-POP을 떠올리게 하는 곡의 분위기는 이별의 순간이 반드시 비통함으로만 채워질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중반부에는 록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리듬이 이어지며 기원과 축원의 정서를 드러낸다. ‘제석굿’을 바탕으로 한 ‘신맛이’, ‘내려온다’, ‘God bless’는 경쾌한 박자와 반복되는 리듬 위에 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짙은 언어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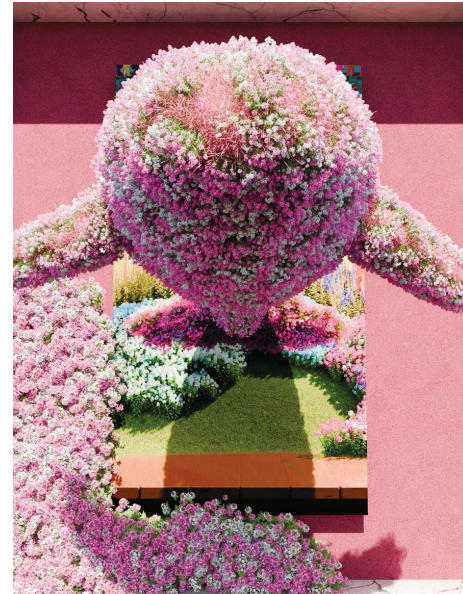
김 작곡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곡으로 7번째 트랙 ‘안녕’을 꼽았다. 잔잔한 선율 속에 함께한 이와의 기억을 아름답게 그리는 곡이다. 그는 “지난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가까운 지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내며 느낀 감정이 씻김굿이 지닌 정서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마주한 마음을 최대한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길닭음’ 역시 저음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원형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잘 풀어낸 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음반의 마지막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노래들로 채워진다. ‘여정’과 ‘Be Happy’는 한층 힘 있는 사운드로 흐름을 이어가며 씻김의 과정을 과거의 의식이 아닌 오늘의 희망으로 풀어낸다. 애도의 시간을 지나 다시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메시지가 담겼다.

연주는 대규모 편성 대신 실내악 중심으로 꾸려 노래의 메시지가 보다 또렷하게 전해지도록 했다. 향후 무대 공연으로의 확장도 염두에 둔 구성이다.

김 작곡가는 “죽음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이다. 떠나는 이를 향한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굿인 만큼, 이 음반이 이별을 경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음반이 대중의 공감을 얻어 진도 씻김굿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수진 작 '감각의 교차점'



셀프메이드 작 '빛으로 기록된 마을-월봉의 시간'

## ‘빛나는 광산, 실감나는 예술’

31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 등을 모티브로 한 실감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리고 있다.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인 ‘빛나는 광산, 실감나는 예술’전은 실감미디어 작품을 매개로 지역의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는 박상화, 셀프메이드, 이수진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실감미디어가 발하는 몰입감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예술 감상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작들은 광산구의 근·현대 역사를 비롯해 인물, 문화, 자연을 소재로 시각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다. 또한 기존의 소장품, 명화 등 이미지를 활용해 콘텐츠로 구성했다.

박상화의 ‘포스트네이처’는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움으로 가득하다. 푸른 산등성이를

배경으로 서 있는 여성들은 모두 푸른 잎과 꽃들로 치장하고 있다. 코스모스와 들꽃으로 둘러싸인 정경은 훼손되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이수진의 ‘감각의 교차점’은 아기자기한 꽃으로 장식한 인형의 모습을 구현한 듯하다. 외형상 인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인형을 닮은 작은 동산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인공과 자연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관람객들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셀프메이드의 ‘빛으로 기록된 마을-월봉의 시간’은 일출 직전의 월봉 위로 퍼지는 화려한 빛을 포착했다. 소묘의 분위기가 나지만 미디어아트가 발하는 특유의 분위기와 색감은 특별한 감성으로 다가온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희자 작 '베네치아'

## ACC재단, 올해 운영 전략은 ‘선택과 집중’

‘뉴욕의 거장들’, ‘더 펄스’, ‘슈퍼클래식’, ‘브런치 콘서트’...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으로 지역민들을 즐겁게 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이 설립 5년차를 맞았다.

ACC재단은 올해를 계기로 운영 방향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내세운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하나로 묶어 관객이 더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연 분야다. ‘ACC 슈퍼클래식’, ‘ACC 페니’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대중 공연 프로그램을 ‘ACC 초이스’라는 이름으로 통합한다.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인지도를 높이고, 작품 중심의 기획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ACC 브런치콘서트’도 변화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브런치콘서트 플러스’로 확대돼 월 2회 운영된다. 오전 공연뿐 아니라 저녁 공연도 함께 마련해 직장인과 학생 등 다양한 관객층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토크 콘서트와 액터 콘서트 등 형식도 넓혀 관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아외와 대형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역시 새롭게 묶인다. ‘빅도어 시네마’와 ‘빅도어 콘서트’는 ‘빅도어 페스티벌’로 통합돼 공연과 상영을 함께 즐기는 축제형 콘텐츠로 운영된다.

전시 부문에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겨냥한 특별한 기획이 이어진다. 오는 9월에는 모네와 반 고흐 등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

시가 열리고, 10월에는 만화 ‘식객’의 이야기를 전시로 풀어낸 기획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ACC 창·제작 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계속된다. 오는 6·9월 오스트리아 빈 국립세계박물관에서는 ‘식객’과 ‘나 혼자만 레벨업’을 소재로 한 ‘한국의 만화와 웹툰’ 전시가 열린다. 이와 함께 민간 예술단체의 작품을 발굴해 유통으로 연결하는 ‘콘텐츠 파트너십’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어린이문화원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노후화된 유아놀이터를 전면 개편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어린이문화예술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ACC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은 ‘어린이크리에이터’로 바뀐다. 아이들이 사진과 영상, 글쓰기를 통해 ACC 콘텐츠를 소개하며 표현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어린이극장 역시 자체 제작 공연과 상설 공연을 늘려 어린이 공연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슈퍼클래식·페니, ACC초이스로  
오스트리아서 ‘한국 만화·웹툰’전  
ACC어린이해설사→크리에이터  
지역 상권 연계한 ‘브런치 콘서트’

지역과의 연결도 한층 강화된다. ACC재단은 브런치콘서트 관람을 지역 상권과 연계해 공연 관람이 인근 식당과 카페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 향유가 지역 경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어진다. 2026년에는 주차 관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혼잡을 줄이고, 전당 안에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편의·문화 공간을 늘릴 예정이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2026년을 사업을 키우기보다 정리하고 다듬는 해가 될 것”이라며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해 7~10월 열린 ‘ACC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뉴욕의 거장들’의 모습.

<ACC재단 제공>

## ‘자연의 문장 빛으로 그리다’

황토회 정기전, 28일~2월 3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지난 1970년 창립한 ‘황토회’는 단체 이름에 정체성이 내재돼 있다. 남도의 땅이라는 원초성을 넘어 생명의 발아, 정서의 응축 등을 함의한다. 서양화가 고(故) 오지호, 배동신이 창립했으며 한국 미술의 정통성과 실험성을 토대로 반세기 넘게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로 창립 57년을 맞는 황토회가 제 57회 정기전을 갖는다.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

이번 전시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초청 작가들과 함께 더욱 의미가 깊다. 초청 작가는 신중섭, 송용, 강연균, 배동환, 박동인, 신문용, 김대원 등으로 한국 화단의 대표자는 서양화 및 동양화의 대가들이다.

‘자연의 문장 빛으로 그리다’를 모토로 진행하는 전시에는 황토회 회원 작가들의 작품과 초청 작가들의 개성적인 작품이 어우러진다. 세대와 장르, 지역을 넘는 미술적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 외에도 황토회의 지향점과 동시대적 의미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신동연의 ‘봄나들이’는 한겨울 속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메마른 가지에 한 잎, 두 잎 피어나기 시작한 노오란 꽃잎과 소담한 시골의 풍경이 따사로운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겨울을 저만치 밀어내고 찾아온 봄을 만끽하려 길을 나선 춘부의 모습이 미소를 짓게 한다.

고희자 작가의 ‘베네치아’는 이국적인 풍경이 환기하는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다. 베네치아를 아는 사람들이든, 모르는 사람들이든 화폭 앞에 서면 베네치아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다가온다. ‘물에 뜬 도시’라기보다 허공 위에 뜬 몽환적인 도시의 이미지는 작가의 심상에 펼쳐진 ‘캔버스’가 그만큼 유려하고 다채롭다는 방증일 것이다.

고희자 황토회 회장은 “이번 전시는 57년째 이어져 온 황토회의 역사와 오늘의 활동 등을 돌아보고 내일의 시간을 가능해볼 수 있는 자리”라며 “회원 작가들과 초청 작가들의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